

朝鮮朝 筆記·野談에 수록된 개 관련 기록의 양상과 그 성격*

한의승(전남대)

<목차>

- | | |
|-------------------------------|------------------------|
| 1. 머리말 | 4. 筆記·野談에 수록된 개에 대한 인식 |
| 2. 筆記·野談에 수록된 개 관련 문헌 현황 | 의 편차와 그 의미 |
| 3. 筆記·野談에 수록된 개 관련 기록의 양상과 성격 | 5. 맺음말 |

1. 머리말

최근 들어 혼밥, 혼술로 대표되는 개인적 삶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혼밥, 혼술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상황과 의미 등을 다양하게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해석의 시각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라는 공동체 중심적 삶으로부터 이탈,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있어 개인이라는 자아가 전면화 된 현상, 또는 공동체 중심의 삶의 방식에 대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개인의 회의가 집단적으로 표출된 사회 현상 등으로 집약된다.

문제는 혼밥, 혼술이라는 개인적 삶을 과연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냐?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게 된다. 청년 실업이란 사회적 문제가 비혼, 저출산, 성장 둔화 등과 북마전처럼 얽혀있는 까닭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건 무의미하게 보일 정도다. 파편화된 개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거의 필연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혼밥 문화는 주체적 개성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한경쟁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육아, 공동체적 활동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바로 반려동물의 증가이다. 언뜻 보아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혼밥문화와 반려동물의 증가는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파편화된 개인적 삶을 선택했을 때, 공동체적 동물로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외롭기에, 사람을 대체할만한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바로 반려동물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 삶과 반려 동물의 관계는 이제 사회적 현상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대안적 삶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고전문헌에 기록된 반려 동물의 존재는 어떠한 형상으로 녹아들어 있는지 살펴볼 때 흥미로운 지점을 읽어낼 수 있다.

개는 예로부터 인간과 가장 가까이 함께한 반려 동물 가운데 하나로 존재해 왔다. 개와 관련된 다수의 구비전승 설화나 문헌 기록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가운데 개를 형상화 한 문헌 기록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주목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문헌에 기록된 동물에 대해서는 일찍이 ‘動物說’로 지칭되는 산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개별 동물이 문헌으로 기록, 정착되면서 상징화된 양상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으로, 이들 논의의 특징은 동물을 통해 상징화

된 인간의 세계, 즉 우언의 지표로 활용된 동물을 주목한 것에 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다양하게 제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 가운데 개에 주목한 논의는 개와 인간의 밀접한 관계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외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만을 대상으로 주목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고는 漢文學 속에 표상된 개의 인식과 관련하여 조선조 筆記·野談에 수록된 개 관련 기록의 양상과 성격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¹⁾ 서사문학의 관점에서 동물관련 논의는 說話, 假傳, 小說의 분야에서 다뤄졌다.²⁾ 아울러 문집에 수록된 ‘動物傳’, ‘동물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³⁾ 최근에는 寓言의 관점에서 관련 작품을 분석하고 새로운 우언작가를 발굴, 소개하는 작업이 수행되기도 하였다.⁴⁾

- 1) 본고에서 대상 문헌의 범위를 筆記·野談으로 국한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에 대한 기록은 주로 義狗설화나 ‘忠狗傳’, ‘義狗傳’ 등이 많은데, 그 시각은 기록 주체에 의해 재구되거나 교조적 성향이 강한 관계로 개에 대한 인식이 특정 부면만 돌출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와 인간의 관계를 주축으로 교화적 시각으로 서술된 산문들과 달리 필기·야담의 경우 개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파악하고 동물적 습성과 인간과의 생활에서 빚어진 교감과 특정 사건에서의 대응 등으로 수용되는 지점을 점검해 보는데 상대적으로 유용하다.
- 2) 한국서사문학에서 동물이 어떻게 인식되고 형상화되고 있는지 집체적 관점에서 논의한 결과물이 정리되어 나온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환 편저, 『한국서사문학과 동물』, 보고사, 2005 참조.
- 3) 권오성, 「〈義狗傳〉고」, 『영남어문학』 10, 한민족어문학회, 1983, 17-23면 ; 윤승준, 「動物傳 研究 序說」, 『한문학논집』 14, 단국한문학회, 1996, 356-389면 ; 「조선시대 動物說에 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15, 근역한문학회, 1997, 227-259면 ; 신승훈, 「朝鮮朝 散文에 나타난 動物의 形象」, 『東方漢文學』 63, 東方漢文學會, 2015, 9-27면 ; 윤세순, 「한문소설에 나타난 주요 동물의 문학적 형상」, 『東方漢文學』 62, 東方漢文學會, 2015, 61-92면 참조.
- 4) 대표적인 경우가 윤기이다. 윤기의 우언 작품에 대해서는 임원희, 「무명자와 그의 우언」, 『문헌과해석』, 문헌과해석사, 2005 ; 「무명자 윤기의 산문세계」,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719-745면 ; 김병진, 「尹愔 文學의 動物形象과 寓意」, 『東方漢文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동물관련 논의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구비 전승 설화나 문집소재 한문산문을 중심으로 한 것이 다수를 이룬다. 이 가운데 동물설 또는 동물전에 대한 논의는 『韓國文集叢刊』이나 『韓國歷代文集』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문집총서에 수록되지 않은 문집이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그 안에 수록된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자료에 대한 수집, 정리 등 기초적인 문헌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⁵⁾

본고는 조선시대로 한정하여 필기·야담에 수록된 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개에 대한 인식의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조선조 필기·야담에 수록된 개와 관련된 이야기의 기록을 통해 조선조 士인이 개를 인식한 양상과 포착한 지점의 국면 등을 주목한 것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조선조 전반에 걸쳐 인간과 개의 관계 양상에 대한 발전적 논의의 단초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筆記·野談에 수록된 개 관련 문헌 현황

일반적으로 필기·야담의 이야기 속 핵심 주체는 人物이다.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기이하고 신이한 사건 또는 그 인물의 성향을 포착하여 서사화 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필기의 하위 갈래인 逸話나 詩話, 笑話, 野乘 등의

學』 62, 東方漢文學會, 2015, 202-227면 참조.

5)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문집해제』나 한국국학진흥원의 『문집해제』, 각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소장고서 해제사업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개별 이야기가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 등장할지라도 인물이란 주체와 관련되어 특정한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소환될 뿐이다. 이야기의 주체로 설정되기 힘든 구조에 포섭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동물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는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동물전>과 <동물설>이다. 주로 문집에 ‘~說’, ‘~傳’과 같은 산문 문체로 수록되거나 ‘雜著’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잡저에 수록된 글 가운데 嶺南 南人 文集 소재 글은 특유의 기록전통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작품들이 종종 포착된다.⁶⁾

흥미로운 양상은 동물이 작품의 중심으로 소환될 경우 등장하는 종류에 따라 주장,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은 개·닭·말·소·고양이·쥐·호랑이·거북이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동물은 개·닭·말·쥐 그리고 고양이 등이다.

한문산문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의 경우, 작가의 주장과 메시지에 따라 작중에서 상징성이 고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쥐는 ‘방자하고 부패한 관료, 지혜와 경륜의 양면성’을 지닌 존재, 고양이는 그런 쥐를 징치하는 ‘부패의 척결과 교활한 술수’를 가진 동물, 호랑이는 ‘절대자에 대한 외경과 회화’의 대상, 말은 ‘불우한 인재’를 상징⁷⁾하는 것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우연적으로 표출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동물의 행동 습성을 포착하여 그것을 통해 상징을 부여한

6)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천유록』이란 ‘잡록’을 대상으로 그 편린을 대강이나마 살펴본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의승, 『『闇幽錄』 계열 ‘雜錄’의 유전 양상 연구』, 『大東漢文學』 50, 大東漢文學會, 2017, 184-204면 참조.

7) 윤승준, 「한중 우언의 동물 상징」, 『동방학지』 137,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7, 301-333면 참조.

것이므로 일정부분 패턴화 된 양상을 띠는 것이다.

특히 개의 경우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충직한 동물로 형상화 된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적 이데올로기⁸⁾가 여과없이 반영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지점에 해당된다. 하지만 ‘낮선 것을 보고 짓거나 현자나 충직한 신하를 혈뜯고 몰아내려는 소인배’ 혹은 ‘무능하고 간악한 신하,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재의 진출을 가로막은 채 권력을 농단하는 부정적 권신’을 상징하기도 하며, ‘눈앞의 이익을 다투는데 혈안이 된 속물적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기도 한다.⁹⁾ 개의 상징이 생각보다 다각화 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뜻 보아 이들은 ‘충직한 동물’이라는 고착화된 상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큰 맥락에서 보면 ‘忠直’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개가 동원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충직한 동물로 고착화된 상징과 그 역할이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먼저 동물전과 동물설의 형태로 문집에 수록된 작품의 경우 개가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만력 정사년에 석주 사람 김씨가 사냥으로 엽을 삼았다. 하루는 사냥하러 갔다가 범을 만나서 화살을 쏘았으나 명중시키지 못했다. 범이 으르렁 거리며 어급니로 물어서 거의 먹힐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4마리의 사냥개가 뒤를 따르면서 주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민망히 여겨 부르짖고 뛰면서 용맹하게 달려가 앞의 두 마리는 호랑이의 겨드랑이를 물고 뒤의 두 마리는 호랑이의 앞다리를 물었다. 호랑이가 이미 주인을 물려고 할 적에 버리자니

8) 이 글에서는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중립적이고 넓은 의미, 즉 모든 시대와 사회를 통해 언제나 존재하고 인간 활동에 특정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담론적 구조물로 상정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으며, 각 시대마다 각 시대의 주요한 정치담론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을 전제한다.

9) 윤승준, 전계 논문, 307-312면 참조.

도리어 당하게 될까 두렵고 버리지 않자니 4마리 개에게 해를 당할 것 같아 기세가 촉박하여 버리고 도망가니 이에 김씨가 온전하게 살 수 있었다.¹⁰⁾

㉞ 이윽고 어미 개를 잡아 집으로 돌아가 삶는데, 3마리의 새끼 개가 술 주위를 돌다가 쭈그리고 앉았다. 곧 삶아져 먹으려 하자, 이웃사람이 와서 침을 흘리며 개고기를 가리켜 말하길 :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자, 3마리 개가 서로 돌아보면서 크게 부르짖으며 어금니를 드러내고 뛰어올라 그 사람을 마구 깨물어 죽였다.¹¹⁾

위의 ㉞, ㉞ 두 예문은 李惟弘의 <義狗傳>, 金樂行의 <孝狗說>의 작품 속 특정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서술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화와 논평이 결합된 형태이다. 입전인물의 가계 및 출신을 서술하는 인정기술이 동물에게는 필요 없기에 삭제되었다. 위의 예문은 공통적으로 義와 孝를 개의 행위를 통해 집약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의를 지키기 위해 약자가 강자에게 목숨을 걸고 덤비거나, 비록 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더욱 효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통해 의와 효의 의미가 명징하게 형상화 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문집 소재 동물설 가운데 개를 중심으로 창작된 작품은 주인에 대한 의리를 중심으로 형상화 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는 당대적 상황을 개의 행동을 통해 우의하여 형상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를 통해 형상화 된 굳건한 연대나 의리는 사회에 대한 외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연대나 신의 등을 헌신짝 취급하는 당대 인간 군상에 대해 우회적이

10) 李惟弘, 『良庭集』, <義狗傳>, “萬曆丁巳, 石州人金其姓者, 以獵爲業. 一日行獵, 遇虎發矢不中命, 虎乃獐而剔, 牙而嚙, 幾爲食. 有四田犬, 隨其後, 閱其主之不可救, 嗥號躑躅, 賈勇趨前, 二犬噉虎之腋後, 二犬搏虎之肱, 虎既噬其主, 捨之則恐反噬, 不捨則四犬爲之害, 勢蹙氣迫, 棄而遁, 金乃得全.”

11) 金樂行, 『九思堂集』, <孝狗說>, “既屠歸而烹之, 三狗環鼎而蹲, 既烹將食, 隣人適來, 流涎而指曰: ‘可食?’ 三狗則相顧大叫, 張牙而跳, 亂嚙其人至死.”

고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대의 정치질서가 반영된 것으로 이 때 개는 사실 소나 닭으로 바뀌어도 그 의미는 유사하게 형성됨으로, 이데올로기적 정치질서를 형상화한 가시화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3. 筆記·野談에 수록된 개 관련 기록의 양상과 성격

그렇다면 문집에 수록된 개 관련 기록과 비교하여 필기·야담에 수록된 개의 기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먼저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¹²⁾

<표 1> 필기·야담 소재 개 관련 기록

필기집	저자	생물연대	수록권수	제목
浮休子談論	成 倪	1439~1504	「우언」 19	
稗官雜記	魚叔權	미상	권4	
松溪漫錄	權應仁	1517~?	권하	
星湖僮說	李 漢	1681~1763	권4, 권6	〈犬妖〉, 〈虎攫狗〉
汨董錄	趙普陽	1709~1788	53화	
林下筆記	李裕元	1814~1888	권11	〈東京犬〉
야담집	저자	생물연대	수록권수	제목
於于野談	柳夢寅	1559~1623	만종재본 534화	〈丁酉之亂扶安民〉
記聞叢話	미상		30화	꼬리가 짧은 경주개
東野彙輯	李源命	1807~1887	권15	〈義狗救人且復讎〉
靑邱野談	미상		버클리대본 권5	〈吹官庭義狗報主〉

12) 다만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개 관련 실화는 일차적인 자료로 언급하진 않는다. 문헌에 기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구비전승 자료를 선별적으로 취합하여 사용할 것이다.

위의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개를 중심으로 서술한 필기·야담의 작품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개 관련 작품의 다수는 문집 소재 ‘동물설’, ‘동물전’ 등으로 수렴되는데, 문집에 다수의 작품이 수록된 것은 인간과 지근의 거리에서 생활하는 개를 통해 우의를 펼치려 한 조선조 사인의 작가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이해된다.¹³⁾ 본장에서는 필기·야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1. 筆記에 수록된 개의 형상

필기에 수록된 개의 기록은 앞선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成俔의 『浮休子談論』, 魚叔權의 『稗官雜記』, 權應仁의 『松溪漫錄』, 李瀾의 『星湖僊說』, 趙普陽의 『汨董錄』, 李裕元의 『林下筆記』 등에서 개 관련 일화가 확인된다. 필기에 수록된 개 일화는 기본적으로 필기의 속성에 견인되어 기술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보니 필기 소재 일화는 개라는 동물과 관련된 소재라면 일단 포섭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래와 같은 것이다.

옛날, 문경 현감이 통인을 보고 말하기를, “오늘은 매우 한가하니 聯句나 지어볼까?”하였다. 통인이 원에게 먼저 짓게 사양하였다. 원이 먼저 읊기를, 주흘산 앞에 곰이 논논한다(主屹山前能論論)하였다. 능(能)은 웅(熊)과 통해 썼으며, 논론(論論)은 곰이 노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말이 떨어지자 통인이, 막동문 밖에 개가 몽몽 짓는다(莫同門外大蒙蒙)하였다. 대(大)는 견(犬)과 통용한 것이고, 몽몽(蒙蒙)은 개 짖는 소리인 것이다. 원이 말하기를, “어떻게 개 견(犬) 자를 큰 대 자로 할 수 있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사또께서

13) 문집 내 개의 기록은 산문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박동욱, 『한문산문에 나타난 개의 형상』, 『대동한문학회 124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27-44면 참조.

는 꿈의 네 말을 끊어 쓰셨는데, 소인이 어찌 개의 귀 하나쯤 뿔 수 없겠습니까?”
하니, 듣는 사람이 이가 시리도록 입을 벌리고 웃었다.¹⁴⁾

위의 일화는 권응인의 『송계만록』에 수록된 것으로 언어유희의 소재로 개가 활용된 것을 보여준다. 언어유희는 주로 한자의 모양이나 음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송계만록』에서는 개 견(犬)자의 한자 모양을 중심으로 이야기에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일화를 통해 개에 대한 인식의 지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개라는 대상 자체에 대한 인식과 대상이 가진 특징적 성격에 일정부분 주목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수 있다.

또한 필기에 수록된 일화는 특정한 개의 어원과 관련된 유래를 설명하기도 한다.

『지리지』에 이르기를, “동경의 地形은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는 형상으로 서, 이 지방에 나는 개들은 대부분 꼬리가 없다. 그러므로 향간에서 꼬리가 없는 개들을 속칭 동경견이라 부른다.”하였다.¹⁵⁾

위의 예문은 굴산 이유원의 필기집인 『임하필기』 권11, 「문헌지장편」에 실린 동경구 관련 기록이다. 동경구의 어원에 관해 설명한 것인데 그 출처를 『지리지』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9세기에 편찬된 야담집인

-
- 14) 權應仁, 『松溪漫錄』下, “昔有聞慶縣監謂小胥曰: ‘今日閑甚, 聯句可乎?’ 小胥讓於倅, 倅先吟曰: ‘主屹山前能論論, 能熊通論論遊貌.’ 小胥應聲曰: ‘莫同門外大蒙蒙, 大犬通蒙蒙吠聲.’ 倅曰: ‘何以犬爲大乎?’ 曰: ‘君侯斷熊之四足, 小吏何不割犬之一耳乎.’ 聞者齒冷.” 해당 작품의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15) 李裕元, 『林下筆記』 권11, 〈東京犬〉, “『地理志』, 東京地形, 有頭無尾, 犬之生於此地者, 多無尾, 故俗諺因以無尾犬, 謂之東京犬.” 해당 작품의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記聞叢話』에도 동경구 관련 유사 일화가 실려 있는 것이다.

『기문총화』에는 “풍수설에 의하면 경주는 꼬리 부분이 없다. 그래서 경주의 토종개들은 모두 꼬리가 짧은데, 속칭 동경구라고 한다. 오늘날에도 서울에서는 꼬리가 짧은 개를 가리켜 동경구라고 한다.”¹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경주의 토종개인 동경구의 어원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 출전을 풍수설로 다소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기문총화』에 수록된 일화는 남학명의 『晦隱雜識』을 원출전으로 명시하고 있다.¹⁷⁾

두 일화는 동경구 관련하여 특이한 일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 게 아니라 꼬리가 짧은 개의 유래를 설명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개에 대한 인식의 지점을 살피기는 쉽지 않으나 동경구의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백과사전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두 일화는 필기의 글쓰기 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꼬리가 짧은’이라는 형용에서 볼 수 있듯이 토종개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인식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필기에 수록된 일화 가운데 주목할 자료는 성현의 『부휴자담론』 4권, 「우언, 편이다.

노인이 또한 그 폐해를 싫어하여, 서쪽 마을에서 명견인 한로를 사왔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러 붉은 재갈 장식을 꾸며주고, 목직한 방울을 매달아 주었으며, 쌀밥을 먹이고 고기 뼈와 살까지도 던져주었다. 이에 한로는 살팽이

16) 『記聞叢話』 30화, “慶州風水無後餘, 故土狗皆短尾, 俗稱以東京狗, 至今京中亦目短尾狗曰: ‘東京狗’”

17) 『기문총화』와 『임하필기』에 기록된 동경구 관련 두 일화의 출전이 다른 점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기문총화』에는 『회은잡지』에서 전재한 일화가 3편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기문총화』 1권에 들어있다. 『기문총화』 1권의 경우 필기, 폐설 등을 전재한 것이어서 잡록의 성향이 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준형, 「『기문총화』의 전대문헌 수용 양상」,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보고서, 2001, 441-467면 참조.

종자들을 모두 잡아 물어 죽였다. 문에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밤에 지키고 있으면 도둑이 감히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사납게 울부짖고 점차 광기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한로가 노인의 아들 발을 물어 상처를 내었다. 노인이 가서 꾸짖자 한로는 또한 노인 위로 뛰어올라 노인의 얼굴을 물었다. 얼마 되지 않아 부자 모두 개에게 물린 독 때문에 죽고 말았다. 부휴자가 탄식하며 말하길, “아! 노인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 폐해를 없애고자 하였으나 폐해가 더욱 커졌으니, 위로는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고, 이래로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할 수 없어 마침내 그 집안을 망하게 했구나.”¹⁸⁾

위의 일화는 쥐를 잡기 위해 살팽이를 길렀으나 오히려 살팽이가 닭과 새끼 오리를 잡아먹는 까닭에 한로라는 개를 사와 살팽이를 잡게 하였는데, 오히려 한로에게 물려 죽은 노인父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물론 쥐를 잡기 위해 사용된 살팽이를 다시 잡기 위해 개가 소환된 것이므로 개의 용도는 정해져 있다. 그러한 개가 직분을 잊고 주인을 물어뜯었고 그 결과 주인 부자가 죽게 된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다. 위의 대목은 한로라는 개와 관련된 부분을 절취한 것으로, 폐해가 폐해를 낳는 악순환의 연속에 대한 비판이 서술의 핵심을 이룬다.

『부휴자담론』, 「우언」편에 소환된 개의 형상은 작자의 의도를 표출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 이해된다. 비유를 통해 의도를 전달하려는 우의의 서술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그 주체는 개이다. 작품은 쥐 → 살팽이 → 개로 이어지는

18) 成倪, 『浮休子談論』, 「寓言」 19, “老人亦惡其害, 購得韓盧於西里, 愛而畜之, 飾以朱幘, 懸以重環, 飼以白飯, 投以肉骨. 於是, 盡驅狸奴之種, 咋而殺之, 應門則人不敢近, 防夜則盜不敢入. 然自是, 狺狺哮猛, 漸成狂癩. 一日, 咬傷其子之足, 老人往叱之, 盧又仰咬其面. 未幾, 父子俱被毒而死. 浮休子曰: ‘噫! 老人之愚也. 思去其害而害愈大, 上不能保其身, 下不能保其子. 竟喪厥家, 悲夫.’” 해당 작품의 원문과 번역은 성현 지음/이종묵 옮김, 『부휴자담론』, 홍익출판사, 2002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동물의 먹이사슬 순환 도식의 최상위 단계에 개를 포치시켰다. 이때 포착되는 개의 특징은 名犬에서 狂犬으로 돌변한다는 점이다.

살쟁이를 잡기에 가장 적합한 개를 데려와서 충분히 대접을 해줄 때 노인이 의도했던 목적은 살쟁이 사냥이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온갖 대접을 다 해주었으며, 개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목적 달성 이후 인간과 개 사이의 인지 부조화가 발생한다. 개의 동물적 습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부자가 물려 죽게 되는 불행한 상황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일화는 의구나 충구를 묘사하는 이데올로기적 글쓰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위의 일화가 의구나 충구의 형상을 주목한 일반적 시선과 분기되는 특징은 개의 동물적 속성을 포착하여 주목하는데 서사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늑대과에 속한 개의 동물적 특징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포착한 것임을 의미한다. 개에 대한 인식을 충과 의로 연결시켜 서술하는 일반적 기술 방식과 다르게 접근한 것에 특징이 있다. 아래에 제시된 일화 또한 이러한 현상과 맥이 닿아 있다.

개는 사람이 기르는 것이니 사람에게 의지하여 먹이를 구하고, 주인을 위하여 집을 지키는 것이 그 본성이다. 종종 말년부터 돈의문 밖 인가의 여러 개들이 북쪽 산으로 올라가서 시체를 찾아서 먹고는 인하여 내려오지 않고 새끼까지 낳아서 6·7년이 되자 수효가 4, 50마리나 되어 사람을 보면 짓으며 물곤하였다. 가정 무신년에 늙은 군사가 개떼에게 물려 죽자, 개들이 다투어 뜯어 먹어서 거의 없어졌다. 금군에게 명하여 연일 쫓아 사냥하여 수십 마리를 잡았지만 달아나서 잡히지 않은 것도 많았다. 이런 것은 그 본성에 거스른 것이라 하겠다.¹⁹⁾

19) 魚叔權, 『稗官雜記』 권4, “犬人畜也, 依人求食, 爲主守閫, 此其性也. 自中廟末年, 敦義門外人家群犬, 上北山, 尋屍食之, 因而不下, 至產兒狗, 積六七年, 多至四五十頭, 見人則吠噬不已. 嘉靖戊申, 有老兵, 被羣噬而死, 爭食日盡, 命禁軍, 連日逐獵, 獲數十頭, 走免者尚

위의 일화는 어숙권의 『패관잡기』에 수록된 것으로 개의 동물적 습성을 중심으로 포착하여 서술하였다. 『패관잡기』의 내용은 中宗 말년에 개들이 사람의 시체를 먹고 수를 불려 사람만 보면 짖으며 물어버렸던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개의 본성이 사람에게 의지하여 먹이를 구하고 주인을 위해 집 지키는 것임에 반해, 人肉의 맛을 알게 되자 특유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된 점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를 어떤 하나의 고정된 형상으로 압축시키기보다 가변적인 본성이라는 다소 복잡한 논의를 통해 개를 그려내고 있다.

『패관잡기』의 일화를 통해 본다면 저자는 당시에 聞見한 사실을 바탕으로 개의 행동 변화를 통해 본성의 문제를 환기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교화적 수단으로 개의 행동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이나 사건을 주목한 방식에서 벗어나 동물이라는 생물학적 측면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개를 사람이 어떻게 다루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주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위 일화는 개를 어떻게 대우하고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호명될 수 있는지를 특정한 사건을 예로 들어 포착했다는 점에서 특기될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개의 동물적 습성, 태도 등을 포착하는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성이 강조되며 공존의 기술이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천하에는 말은 직분을 제대로 못 하는 자가 역시 많다. 개는 도둑을 막는 것이 제 직분이고 또는 성질이 예민해서 도둑만 보면 반드시 짖게 됨은 그 말은 직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개란 사람이 길러 주어야만 살게 되나, 그

多, 可謂逆其性矣.” 해당 작품의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마음은 짓는 것으로써 길러 주는 은혜를 갚는다고 꼭 여기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성질대로 천기(天機)가 저절로 움직여지게 되는 까닭에, 기르는 집 주인이 친구나 혹은 높은 손님을 반갑게 맞아들일 때 개는 반드시 쫓아와서 어지럽게 짓는다. 막대기로 쳐서 쫓아 버려도 그냥 짓고만 있으니, 이는 짓는 성질만 있고 구별하는 지혜는 없는 것이다. 대저 사람이 살자면 반드시 감춘 것이 있고, 감추어 두면 반드시 엿보는 이가 있다. 이 엿보는 자는 반드시 밤으로 다니지만, 밤이 되면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야 한다. 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이 개는 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 고을에는 범이 제멋대로 횡행하면서 가끔 개를 움켜 간다. 밤이 되면 개는 도둑을 엿보는데 범은 또 개를 엿보게 된다. 그러나 개는 옹맹도 범을 대항할 수 없고 지혜도 범을 삼가서 잘 피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범만 나타나지 않으면 한테서 잠자기를 꺼리지 않고 범만 만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주인으로서 는 늘 개에게 그렇게 말라고 타이르긴 하나, 개가 능히 제대로 깨달아 알도록 할 수는 없다. 가까운 이웃과 먼 동리에서 모두들 개가 범에게 물려 갈까 걱정하는데, 이 개는 저 혼자 듣는 척도 앓다가 결국 범에게 먹히고 말았다. 아! 개란 사람과 함께 늘 한집안에서 살기 때문에 알고 깨닫는 성질이 전혀 꼭 막힌 단 짐승 따위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어찌서 날마다 타이르는 주인의 말을 능히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피할 줄도 이렇게 몰랐느냐? 이미 기르던 개를 잃고 느껴지는 마음으로 기록해 둔다.²⁰⁾

위의 예문은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에 수록된 것으로 개의 습성과 관련하여

20) 李瀼, 『星湖僿說』 권6. 〈虎攬狗〉, “天下寢其職者, 亦多矣. 狗之防偷職也, 狗性警見盜必吠, 踐其形也, 狗待養而生, 其心未必謂以吠報養, 性之所賦, 天機自動也. 故親友尊客, 欣然逢迎, 狗則從而亂吠, 擊逐而不沮, 有吠之性而無區分之智也. 夫人居必有藏, 藏必有窺, 窺必以夜, 夜必人寐, 非狗不覺, 故狗不得不畜也. 吾郡近有虎, 恣行往往攬狗, 狗伺夜盜, 而虎又伺狗, 狗勇不足以自免, 智不足以謹避, 故其不值也. 露宿無忌, 既見則必陷也. 主人雖常戒飭, 而不能使之曉意, 及近隣遠里患促, 而狗獨不聞, 終爲其所啗而後已. 嗚呼! 狗與人常親近也, 知覺之性, 非全塞也, 奈何? 日相慣習不能喻人意, 而莫之知避, 若是之甚也, 既失畜犬感以識” 해당 작품의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여 편저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성호사설』에는 개와 관련된 기록이 하나 더 있으나 개의 동물적 성향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성격에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²¹⁾

위의 예문에 표출된 개에 대한 서술은 기본적으로 개의 동물성을 관찰한 것에서 기인한다. 개는 늑대과의 동물이라 야생성이 강하다. 그런데 사람이 길러줘야 한다는 인간중심적 사고가 성호의 인식 속에 깔려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에 비견될 수 없는 개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지만 사람과 같은 깨달음은 학습을 통해서도 도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개는 동물이라는 기본적 속성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미친한 동물이 사람과 같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과 결론은 앞에서 논의한 충과 의의 상징으로서의 개와는 다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개라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함께 ‘개를 잃고 느껴지는 마음’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조보양의 『골동록』에는 개 관련 일화가 한편 수록되어 있는데, 개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점이 여타 작품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흥미를 끈다.²²⁾

옛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자 기르는 개가 밤낮으로 짖어댔다. 병자는 그

21) 李瀼, 『星湖僊說』 권4, 〈犬妖〉, “예전이나 지금이나 개의 요사한 짓이 많았다. 나의 친족 아무의 집에 높은 누가 있는데, 네 문이 닫혔고 그 속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밤마다 무슨 소리가 떠들썩하면서 서로 다투는 듯 하다가 새벽이 되면 바로 그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의 짓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루는 우연히 살피게 되었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틈구멍을 뚫고 들어가 시끄러움을 피우는 것이었다. 드디어 개를 잡아 없애니, 요사한 소리가 사라졌다고 한다.(古今多犬妖, 余親屬某家, 有高樓, 四壁閉而中無物. 每夜有物喧鬧, 若犇鬪狀, 到曉, 方止. 人以爲鬼. 一日, 偶察之, 畜犬因梯而升, 隙穴透入而然也. 遂殺大妖乃息云.)”

22) 조보양의 『골동록』에 수록된 일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의승, 『汨董錄』 소재 일화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 63,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185-204면 참조.

소리가 싫어 집안사람을 시켜 개를 잡으라 했다. 이웃에 개 소리를 알아듣는 이가 있었는데, 들어보니 여러 개들이 그 개에게 위로하여 말하길 “내일 네가 죽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으냐?”라고 하자, 그 개가 대답하기를 “내가 온 힘을 다해 짚는 것은 주인의 재앙을 막으려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주인은 당연히 돌아가실게다.”라고 하였다. 그 어미 개가 “너를 낳느라 고생 했는데, 네가 이제 충성한 것 때문에 죽게 되니 어떻게 해야 좋으냐. 너는 형제가 가까이 있으니 불리서 이별을 고하거라.”라고 했다. 불리서 서로 이별을 고하는 낚새가 있더니, 어떤 개가 “우리 주인집의 솥에 삶은 콩이 있는데 실컷 먹거나 죽어라.”라고 했다. 그 사람이 이를 듣고서 개 주인에게 죽이지 말라고 하고 싶었으나 이미 밤이 깊었다. 날이 밝은 뒤 가보니, 그 집에서는 이미 개를 잡아버렸다. 이웃집에 탐문해보니 정말로 삶은 콩이 있었는데 개들에게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그날 병자가 과연 죽었다.²³⁾

『골동록』 53화에 수록된 이야기는 개가 주인의 재앙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짚었으나 오히려 그 짚는 소리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양상은 개의 소리를 듣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개의 발화를 전달한다는 서사적 장치가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병든 주인과 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교차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주인이 주체가 되어 개를 잡는 구도로 주인이 우위에 서 있으나, 이면에는 주인이 개를 통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깔려있다. 이 지점에서 주인과 개 사이의 구도가 역전되고 있는 게 발견된다.

23) 趙普陽, 『汨董錄』 53화, “古人有病, 而蕃狗晝夜吠者, 病者惡其聲, 將使家人殺之, 隣有知音者聽之, 群犬相弔之曰: ‘明日汝將死, 奈何?’ 答曰: ‘吾所以盡力吠者, 所以防主之災也, 吾死則主當休矣.’ 其母曰: ‘生汝向勞, 汝今以忠見殺, 將若之何. 爾有兄弟在近, 可招相訣.’ 若有招呼相告之狀, 有一狗曰: ‘吾主家有烹豆在鼎, 可一飽就死.’ 其人聞之, 欲告其主勿殺, 夜已深矣, 待明赴之, 其家已殺狗矣, 搜問隣家, 果有烹豆而失之犬者, 其日病者果死.” 해당 작품의 원문과 번역은 조보양 지음, 『18세기 한 영남 남인의 지적 관심과 기록』, 한국국학진흥원, 2011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전반적 서술은 주인에 대한 개의 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일반적인 의구 계열 작품에서 확인되는 맹목적 의리나 충성에 견인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충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인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는 개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점이 여느 의구 작품과는 한층 다른 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과 동물의 역전이라는 형식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런 글쓰기는 인간의 동물성, 그리고 그 동물성을 통한 공존과 상호성에 대한 비판적 자각을 배후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野談에 수록된 개의 형상

개와 관련된 야담의 기록 역시 그 수가 많지 않다. 柳夢寅의 『於于野談』, 『기문총화』, 이원명의 『東野彙輯』, 『靑邱野談』에 수록된 몇 편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어우야담』에 수록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유년 난리에 부안 백성이 왜구를 피해 풀숲에 엎드려 있었는데, 식구는 모두 도망가 숨고 개 한 마리만 그를 따라왔다. 왜구가 풀숲을 뒤흔다 그 사람을 붙잡아 찢러 죽여, 시체를 들판에 버렸다. 개는 슬피 울며 시체를 지켰는데, 까마귀·솔개·여우·살쾡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매번 짖어서 쫓아 버렸다. 7,8일을 이렇게 하면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와서 시신을 거두었다.²⁴⁾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어우야담』 534화는 주인집 식구에 대한 충을 실천한

24) 柳夢寅, 『於于野談』 534화, “丁酉之亂, 扶安民避倭寇伏草莽, 舉家竄匿, 惟一犬隨之, 倭寇括草莽, 得其人而刃之, 屍僵於野, 犬悲鳴守其屍, 烏鳶狐狸近之, 輒吠而驅之, 如是七八日, 不暫離, 人至而收其屍.” 해당 작품의 원문과 번역은 유몽인 지음/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개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전란으로 인해 가족들마저 제 목숨 살기 위해 도망간 와중에도 주인 곁을 지킨 개의 행동을 집약적으로 포착하였다. 丁酉年이라는 시간에 부안 출신 백성이라는 인물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몽인이 전문한 이야기를 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품의 편폭이 짧은 관계로 서사적 지향이 충분히 발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른 가족보다 주인을 따르고 주변 동물로부터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게 굳건히 지킨 개의 형상을 강조하여 충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실천을 인상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개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투영된 것으로 개를 통해 인간에 대한 시선을 우회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우야담』에 수록된 개 이야기는 인간과 개 사이의 관계가 앞선 필기집에 수록된 것에 비해 서사화 된 양상을 보여준다. 전란으로 인해 가족이 제각기 살기 위해 도망간 상황 속에서도 개는 특정한 사람을 따랐다. 가족들 가운데 그 개를 살뜰하게 챙겨준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개와 보살펴 준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 맺기가 전제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개는 보살펴 준 사람이 죽게 되자 잠시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신을 지킨 행동으로 보답을 하였다. 물론 이 작품은 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시선에 의해 포착된 작품으로 의구설화 계열과의 관련이 선명하게 확인되나, 개와 인간의 관계 맺기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야담집 소재 작품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동야회집』과 『청구야담』속에 수록된 의구 야담이다. 야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당대에 유전되던 의구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문헌에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야회집』에 수록된 작품을 먼저 살펴보면 광태허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에 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야회집』에 수록된 개 관련 야담은 광태허와 개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야담

3편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내용은 광태허의 아내와 스님의 불륜 관계에서 이를 징치한 개의 활약, 술 취한 광태허의 주변에서 불이 나자 물을 뒤집어 써 불을 막은 일, 호랑이와의 대치 상황에서 광태허를 구한 행동 등이다. 위의 야담들은 『동야회집』에 〈義狗救人且復讎〉²⁵⁾란 제목으로 수렴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救人’과 ‘復讎’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청구야담』에도 개를 소재로 한 야담이 한편 실려있다. 〈吠官庭義狗報主〉가 그것으로 기본적으로 구비전승된 의구설화와의 친연성이 우선 주목된다. 하지만 이와 함께 斗庵 金若鍊의 『斗庵集』에 실린 〈義狗傳〉과의 관련성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⁶⁾ 먼저 해당 작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남 하동 땅에 한 수절 과부가 있었는데, 다만 나이 어린 딸 하나 및 계집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날 밤 옆집에 살고 있는 모감이 담을 넘어 침실로 들어와 억지로 겁탈하려 하였다. 과부는 죽기를 각오하고 굳게 저항하니 모감이는 한칼에 과부를 찔러 죽인 뒤 그녀의 딸과 계집종도 함께 죽이고 가버렸다. 그 집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없었다. 세구의 시신이 방안에 있었으나, 지극한 원한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홀연 관문 밖에서 어떤 한 마리 개가 오락가락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문지기가 쫓아내면 잠깐 갔다가 곧 다시 돌아와 끝내 피해 달아나지 않았다. 여러차례 이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사또가 이 사실을 알고 괴이하게 여겨 그 개가 하는 데로 내버려 두라 하였다. 개는 곧바로 관문으로 들어와 동헌 앞으로 달려가 머리를 쳐들고 짖어대는데 마치 하소연할 것이 있는 듯 했다.

25) 정명기 편, 『東野彙輯』 하, 권15, 보고사, 753-757면.

26) 권오성은 전계 논문에서 두담의 〈의구전〉과 『청구야담』의 1화가 상호 유사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영향 관계만을 논했을 뿐 야담의 문헌전승 관계에 대한 논의로는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청구야담』 1화가 어떤 이본을 지칭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사또는 한 군졸에게 명하여 그 개를 따라가 보도록 하였다. 개가 관문을 나와 십수리를 가더니 한 조그마한 집에 이르렀는데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조용하여 사람 소리라곤 없었다. 개가 교리의 옷을 끌어당겨 방문을 향해 가니 군졸이 의아하게 여겨 방문을 열자 방 안에 세 구의 시신이 있었고 유혈이 낭자하였다. 군졸이 크게 놀라 관가로 돌아가 그 연유를 고하였다. 사또는 검시를 위해 급급히 달려가 가까운 이웃에 임시로 거처하였는데 그 곳은 바로 모갑의 집이었다. 모갑은 사또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나 피하려고 하였으나 개가 곧바로 모갑의 앞으로 달려가 그를 물었다. 사또가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이 사람이 너의 원수냐?” 그 말을 들은 개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또는 모갑을 잡아 위엄을 갖춰 세밀하게 캐물으니 매 한번 때리지 않아도 낱낱이 실상을 자백하였다. 즉시 영문에 보고하여 장살하고 시신들은 후하게 매장해 주었다. 개는 묘걸으로 달려가 한바탕 슬프게 울더니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개를 묘 앞에 묻어주고, 「의구충」이라는 비를 세워주었다.²⁷⁾

버클리대본 『청구야담』 권5에 <吠官庭義狗報主>란 제목으로 수록된 이야기이다. 『청구야담』의 작품은 아담적 성향으로 전변이 이루어진 관계로 두암의 <의구전>에 부기된 논평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인과 관계에 따른 서술을 위해 부인의 신원과 관련된 단락이 작품의 서두 부분으로

27) 『靑邱野談』 권5, <吠官庭義狗報主>, 24-26면, “嶺南河東地, 有一守寡婦女, 只一幼女一童婢同居矣. 一日夜, 隣居某甲, 踰牆入寢內, 欲強劫之. 寡女抵死牢拒, 某甲一劍刺殺之, 并殺其女與婢去. 其家無他人, 人無知者, 三屍在房. 至寃莫暴. 官門外, 忽有一狗, 來往躑躅, 闔者逐之, 則乍去旋來, 終不避走, 如是者屢. 官家知之, 怪其狀, 使之任其所爲. 狗直入官門, 至東軒前, 仰首叫嗥, 若有所訴. 官家命一校, 隨狗往見之. 狗出官門, 至十數里一小屋. 房門深閉, 寂無人聲. 狗牽校衣, 向房門去. 校疑之, 開戶視之, 則房中有三箇屍, 流血滿席. 校大驚歸告其由. 官欲爲檢屍, 火速馳往, 依幕於比隣, 適某甲之家也. 某甲見官家臨其家, 蒼黃趨避. 狗直走某甲之前, 咬嚙某甲. 官家怪之問曰: ‘此是汝之讐人乎?’ 狗點頭. 官家遂捉下某甲, 嚴加盤問, 不下一杖. 箇箇首實, 卽報營杖殺之, 厚埋其屍. 狗走至墓傍, 一場悲叫而斃. 村人埋其狗於墓前, 題其碑曰: 「義狗塚」.”(버클리대본)

이동,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청구야담』의 편자가 서사적 완성도를 유지하고 고양시키며 이야기의 내적 의미를 온전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관점을 유지하며 전대 문헌을 수용한 것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해된다.²⁸⁾

앞서 『동야회집』에 수록된 야담 속에서 개는 사람에게 돌봄의 대상으로 형상화 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체로 서술되어 있다. 사람의 조력자로서 역할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²⁹⁾ 하지만 개의 역할이 단순히 조력자의 역할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야담을 구성하는 주요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그것이다. 救人과 復讎의 주체로 개가 소환되는 것이 이를 명징하게 보여준다.³⁰⁾

『동야회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관계로 서술방식에 있어 사람 중심적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즉, 편찬자가 기록을 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수단으로 개를 적극 활용한 사람 중심적 시각이 깔려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시선과는 반대의 움직임, 즉 개와 인간의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개의 반력적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이는 작품 속에서 개가 사람이 처한 상황과 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로 형상화되는 것에서 확인되는데, 꺾태허가 위급한 처지에 놓이자 개에게 자신의 위급함을 알리는 장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과 소통 가능한 동물로 야담 속에서 개가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개와 사람의 친밀한 관계성과 상호적 호혜성에 바탕을 둔

28) 임완혁, 『『靑邱野談』에 대한 文獻學的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25, 韓國漢文學會, 1999, 174-178면 참조.

29) 물론 이러한 형상은 개를 중심으로 서술된 서사에서 자주 등장한다.

30) 개의 이러한 형상은 서사적 지향을 가진 야담이라는 장르적 성향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를 포착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사람과 개가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관계 맺기를 형성한 뒤 그에 따라 교감의 구축이 설정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은 늑대과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개의 우두머리에 대한 복종의 습성에 바탕을 둔 행동이었을 테지만, 정작 인간의 시선에 포착된 뒤에는 강조하고자 한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청구야담』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진 않다. 그렇다면 필기와 야담에 실린 개에 대한 기록의 인식 편차와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4. 筆記·野談에 수록된 개에 대한 인식의 편차와 그 의미

기록된 문헌 속에서 같은 개라 할지라도 필기와 야담의 서술 양상과 인식의 차이는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기에 서술된 개는 동물로 인식하여 생물학적 습성과 관련된 관찰자적 시점에 놓여있다. 때문에 인간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여 저급한 동물로 인식되는 양상이 자주 목도된다. 이는 개를 객관화하여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계의 시선으로 내려다 본 인간우위의 관점이 녹아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개의 동물적, 가축적 습성에 대한 관찰과 주목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편으로 개라는 존재의 독특한 동물성과 습성을 인정하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인간중심주의를 재각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31)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 생물학적 특성을 적극 소환하는 방식은 상당히 유효한 방식이다. 본고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되, 필기와 야담이라는 글쓰기 방식과 성향의 차이 또한 논의의 범위 속에 편입시켜 개에 대한 인식의 지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생물학적 해석의 시각에 대해서는 정규식, 『한국 고전문학과 동물성』, 인문과교양, 2017, 2부 「고전산문의 동물성」을 참고하기 바란다.

반면 야담에서는 인간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적 양상을 주목하여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간에 대해 개가 반응한 지점을 서사적으로 포착한 것에 시선이 고정된다. 이때 야담에 수록된 개에 대한 서술과 인식은 동물성의 측면보다는 인간과의 교감이 전제된 상호시혜의 시선에 조금 더 견인된 양상을 보인다. 즉, 야담에 구현된 개의 의로운 행동양상은 돌봄이자 반려의 대상으로 개를 대했던 인간의 따뜻한 행위에 대한 보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야담에 수록된 개의 형상은 습성과 행동 중심의 기록인 필기와는 달리, 서사적 역할이 부여된 또 다른 주체로 작품 속에 등장한다. 그 기능 또한 인간의 삶을 성찰케 하는 인식 전환의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한 매개적 존재로 소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야휘집』과 『청구야담』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되듯이 사람과 동물이 위계적 질서의 관계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상호 호혜적 존재로 병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시각으로 어느 정도의 부면까지 기술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필기와 야담이라는 개에 대한 서술 방식의 장르적 차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포착된 지점에 의해 서술된 방식은 결국 인식의 분기를 드러낸 지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기와 야담에 기록된 개는 포착된 양상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개가 동물과 반려로 분기되는 지점에 다양한 시선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개를 주목하는 인간의 인식과 그 시선이 얼마만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포착된 의미는 다르게 다가온다.

즉, 동물적 습성을 포착하거나 주인과의 교감을 통해 형성된 개의 기지를

주목하는 것은 교화의 수단으로만 주목했던 개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개라는 동물적 습성에 기반을 둔 일상 행동에 대한 관찰과 포착을 통해 조선조 사인의 기록 성향을 간취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구적 행동을 사람과 개의 관계지향 속에서 견인된 반려적 면모로까지 시선을 끌어올려 본다면 다양한 관계 양상의 포착이 가능해진다.

이는 포스트휴머니즘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필기와 야담에 포착된 개는 단순히 고립적 존재로서의 동물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통해 반려로 재설정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해 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는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혼밥, 혼술로 대표되는 초개인화시대, 1인 가구의 삶을 주목하면서 반려 대상으로 주로 소환되는 개를 고문헌에서 어떻게 인식, 기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필기·야담에 수록된 개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를 구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전제로 먼저 전체적인 자료의 양과 폭을 가늠해 보았다. 이로 인해 대강이나 마 자료의 전반적인 양상을 결눈질해 볼 수 있었다. 물론 필자가 정리한 자료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 향후 지속적인 자료 보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연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료를 본격적인 논의의 선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

개에 대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문집 내 傳이나 說로 수렴되어 수록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작품은 개를 주로 義狗, 忠狗로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개를 주목하기 보다는 인간과 사회의 해석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매개체로 소환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필기나 야담의 경우, 傳이나 說과는 달리 개의 동물성에 집중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개의 생물학적 특성 부각에 중심을 둔 기록과 서사가 전개되는 양상이 그것이다. 먼저 필기를 보면 인간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개가 서술되면서 대체로 저급한 동물로 인식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언뜻 개가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이라는 서술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개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통해 오히려 인간과 개의 다양한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

반면 야담에서는 인간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적 양상을 주목하여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간에 대한 개의 반응 지점을 서사적으로 포착한 것이 주로 서술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읽기를 통해 개를 특정한 이미지나 본질로 고정하는 대신, 개를 감정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 인정하면서 인간과 개의 관계맺음을 중심으로 인식 전환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개의 생물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이데올로기적 동물읽기와는 다른 인식의 분기가 드러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때 핵심은 개를 주목하는 인간의 시선이 그 개체적 특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개를 환원시키는 대신 얼마만큼이나 상호적 거리를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물적 습성을 포착하거나 주인과의 교감을 통해 형성된 개의 기지를 주목하는 것은 개를 義의 화신, 忠의 이미지로만 읽어왔던 것과는 다른 인식적 틀을 포착하는 걸 의미한다. 동물적 습성에 기반을 둔 개의 일상 행동에 대한

관찰과 포착에 중점을 둔 조선조 사인의 기록 성향을 간취함에 있어서 관점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의구적 행동을 사람과 개의 관계지향 속에서 견인된 반려적 면모로까지 시선을 끌어올리면 다양한 관계 양상을 포착해 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리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 필기와 야담에 포착된 개는 단순히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적 반영물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를 재음미해 볼 수 있는 단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상호성과 공존성에 바탕에 둔 반려적 관계의 의미를 고전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주제어: 조선조, 필기, 야담, 장르, 개, 인식, 동물적 습성, 교감, 반려동물

참고문헌

1. 자료

- 權應仁, 『松溪漫錄』
金樂行, 『九思堂集』, 『韓國文集叢刊』 222집.
金若鍊, 『斗庵集』, 『韓國文集叢刊』 속91집.
魚叔權, 『稗官雜記』, 『大東野乘』
李裕元, 『林下筆記』
李惟弘, 『艮庭集』, 『韓國文集叢刊』 속14집.
李 漢, 『星湖僊說』
정명기 편, 『東野彙輯』, 보고서, 1992.
『靑邱野談』, 버클리대본 10권 10책

2. 논저

- 권오성, 「〈義狗傳〉고」, 『영남어문학』 10, 한민족어문학회, 1983, 17-23면.
김동욱 역, 『記聞叢話』, 아세아문화사, 2008.
김병건, 「尹愔 文學의 動物形象과 寓意」, 『東方漢文學』 62, 東方漢文學會, 2015, 202-227면.
김재환 편저, 『한국서사문학과 동물』, 보고서, 2005.
김준형, 「『기문총화』의 전대문헌 수용양상」,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보고서, 2001, 441-467면.
박동욱, 「한문산문에 나타난 개의 형상」, 『대동한문학회 124차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18, 27-44면.
성현 지음/이종묵 옮김, 『부휴자담론』, 홍익출판사, 2002.
신승훈, 「朝鮮朝 散文에 나타난 動物의 形象」, 『東方漢文學』 63, 東方漢文學會, 2015, 9-27면.

- 유몽인 지음/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옮김, 『於于野談』, 들베개, 2006.
- 윤세순, 「한문소설에 나타난 주요 동물의 문학적 형상」, 『東方漢文學』 62, 東方漢文學會, 2015, 61-92면.
- 윤승준, 「動物傳 研究 序說」, 『한문학논집』 14, 단국한문학회, 1996, 356-389면.
- _____, 「조선시대 動物說에 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15, 근역한문학회, 1997, 227-259면.
- _____, 『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 월인, 1999.
- _____, 「한중 우언의 동물 상징」, 『동방학지』 137,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7, 301-333면.
- 임완혁, 「『靑邱野談』에 대한 文獻學的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25, 韓國漢文學會, 1999, 174-178면.
- _____, 「무명자 윤기의 산문세계」,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719-745면.
- 정규식, 『한국 고전문학과 동물성』, 인문과교양, 2017.
- 조보양 지음, 『18세기 한 영남 남인의 지적 관심과 기록』, 한국국학진흥원, 2011.
- 한의승, 「『汨董錄』 소재 일화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어문론총』 63,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185-204면.
- _____, 「『闡幽錄』계열 '雜錄'의 유전 양상 연구」,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2017, 184-204면.

【Abstract】

**The images and characteristics of dogs recorded in Filgi and
Yadam of the Joseon Dynasty**

Han, Eui-soong

This paper investigates Korean literature of Joseon Dynasty renders dogs as life partner while trying to engage in a critical conversation with to the recent trend of extreme individualism exemplified as the emerging culture Hon-Bab(eating alone) and Hon-Sul(drinking alone). Especially it highlights the changing aspects of historical recognition and meaning demonstrated in the literature of dog in Filgi(筆記) and Yadam(野談) in Cho-Sun era.

Literary records of dogs are often found in Chinese essays such as oh-gu-seul-wha, chung-gu-jeon and eui-gu-jeon. However, most of the records utilize and summon dogs for the service of humanity, especially as merely educational means. To the contrary, dog images described in Filgi and Yadam reveal the interesting aspects diverging from the majority of the records.

First of all, the images of dogs described in Filgi are highly domestic and the context of the literature is mostly observational of their biological characteristics. Whereas, Yadam describes dogs as members of family that are included in human lif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viewpoints basically comes from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wo genres. However, if we take a close look at the differences, we can read that the divergence of dog recognition also reflects on the perspectival differences. The core of recognition on the different views depends on how far those perspectives try to make distances between human

being and dogs.

Therefore, the observations on domestic animals' various characteristics and the dog images as life partner forming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ir masters are special parts because it shows that the early Cho-Sun classical scholars engage with attentive observations while most of dog images were used as educational means.

【Key words】 : The Joseon Dynasty period, Filgi, Yadam, genre, dog, awareness, habit of animal, communion, companion animal

한의승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3호관 208호

전자우편: lovehes@daum.net

이 논문은 2019년 7월 26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9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1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